

미디어 외교의 주체, 글로벌 뉴스 채널의 딜레마

Dilemma of the global news channel, a media diplomatic subject

Minjung Jin*

Journalism Studies Institute

Abstract

Referred to as a 'media war,'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for media discours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Twenty four hour global news channels like Al Jazeera, France 24, RT, NHK World, China's CCTV and teleSUR emerged to offer their own perspectives and stance in the global society, and to face the monopolization and distorted information created by the hegemony of English news channels which have swaye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s for a long time. As a tool of public diplomacy, the media's role in determining the image of the nation and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cisive, but it cannot be said that they all have a similar influence or play a positive role in media diplomacy.

A global news channel, which is both a media diplomatic subject and a journalism organization, can be in the position of acting as a public relations organization or a propaganda agency for the government depending on the regime's attitude because most of global news channels rece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ometimes it is difficult for these media to implement quality journalism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Media discourse also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ependent upon changes in foreign policy of its own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news channels, the dilemma these channels are facing, and suggests some potential directions that can be taken by global news channels in order to become more effectiv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or all nations to respond to distorted information about their own countries, to appropriately identify various issues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convey their views and posi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now,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media diplomacy in Korea: There are many English-language media, but as yet no global news channel which could have an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ge. However, there seems to be some understanding about the need for the media to present the Korean alternative discourse to the senseless dependency on

* Researcher, Journalism Studies Institute, 75, Bugahyeon-ro, 22na-gil, Seodaemun-gu, Seoul, Korea. (Phone) 070-8744-8539, (Email) minjin@gmail.com

Western media.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think in depth about the attitude of the Korean global media, whether existing global media or new global news channels, in order to help them become more effective in media diplomacy.

Keywords

Global news channel, media diplomacy, media war, journalism organization, propaganda agency.

I. 들어가며

세계화와 정보화, 민주화의 영향으로 각국의 민간 교류는 활성화되고 있고 일반 국민의 정보 역량은 강화되었다. 이제 과거와는 달리 외교정책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고, 국제 여론이 개별 국가의 대내외 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고 국가 이미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다. 이러한 담론 경쟁에 있어서 미디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영미권 뉴스채널의 헤게모니에 맞서 각국은 자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대응하고, 나아가 자국의 관점과 입장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발신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국제사회의 담론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알자지라, 도이체 벨레, 러시아 투데이, 프랑스24, CCTV 등 수많은 국제방송 채널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과거 미국과 영국이 독점하던 여론시장은 이 새로운 국제 방송 채널들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2003년 이라크전 이후 ‘CNN을 누른 아랍 채널’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비교적 뒤늦게 개국한 프랑스24는 도이체벨레와 더불어 유럽의 대표적인 글로벌 뉴스 채널로 부상했다(김동률 외, 2013).

물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한 독자들은 온라인에서 뉴스를 소비하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믿음만한 취재원을 찾기도 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네트워크상의 이용자가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제도화된 사전 선택적 권위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정보원로부터 개인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제도화된 미디어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사회가 올 것이라 예상하기도 한다(Quant & Singer, 2008). 그러나 여전히 제도화된 미디어들은 주요한 뉴스 생산자로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사이트들은 놀라운 유통 플랫폼이지만 이용자들이 생산한 뉴스만으로는 전통 매체의 지속적인 쇠락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없다(Küng, 2015). 더구나 이러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국제뉴스들은 글로벌 뉴스 미디어들이 생산한 정보가 이용자들에 의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 채널들은 자국의 정치적 입장 혹은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공공외교의 수단일 뿐 아니라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미디어 질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저널리즘을 실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러한 채널을 선택하는 저널리스트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24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24의 구성원들은 이 채널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미디어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들의 오랜 갈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과 전 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뉴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이들에게 다른 언론사 종사자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적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Blet, 2008).

그렇다면 과연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글로벌 뉴스 채널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자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이 채널들의 독립적 저널리즘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뉴스 채널의 현황과 딜레마를 살펴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글로벌 뉴스 채널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미디어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KBS월드, 아리랑TV, 연

합뉴스,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스 등 국내에 영어매체들은 많지만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도 글로벌 뉴스채널로 간주할만한 매체도 부재하다. 대표적인 글로벌 미디어 중 하나인 KBS월드도 한류 드라마 수출에만 집중하고 있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아리랑TV는 예산과 역량 모든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간통신사면서 공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연합뉴스 또한 국제사회의 24시간 글로벌 뉴스 채널과는 거리가 멀다. 이로 인해 몇몇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해외발신 매체들의 창조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글로벌 뉴스채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최영재, 2008; 김성해 외, 2011).

그것이 어떤 방식이건 서구 언론에 대한 무비판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한국적 대안 담론을 제시하는 미디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글로벌 미디어건 아니면 새로운 글로벌 뉴스 채널이건 한국의 해외발신 매체가 효과적인 미디어 외교를 위해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II. 공공외교와 미디어

1. 미디어 외교의 등장 배경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용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자 터프츠대(Tufts University) 플래처스쿨(The Fletcher School) 학장인 에드먼드 갤리온(Edmund Gullion)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Edward R. Murrow Center for Public Diplomacy)”를 설립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재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당시의 공공외교는 냉전구조 아래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국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전체주의를 연상케하는 ‘프로파간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호칭으로 명명하고자 했고 바로 그러한 시도에서 ‘공공외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Audinet, 2017).

사상과 문화의 전달을 통해 타국이 되는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프로파간다와 공공외교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선전을 통해 해당국 국민들의 비판 능력을 차단하는 프로파간다와 달리, 공공외교는 열린 사고와 교류의 관점에서 상대국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Nattier, 2015). 또한 전문적인 외교관이 폐쇄적인 채널을 통해 국가 현안을 해결하던 전통적 외교와 구분함으로써 공공외교를 정의하기도 한다. 즉, 공공외교는 전략적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공감과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매체를 통해 여론에 호소하는 외교 전략이다(김동률 외, 2013).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공공외교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재등장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1년 9.11 테러가 있다. 당시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권위를 잃고 동시에 전 세계에서 반미주의 정서가 급부상하자 공공외교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하드파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 부각한 것이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등 뉴미디어 매체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한 시공간의 격차 해소,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민주화의 확

산으로 인해 외교 정책에 있어서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부상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정보민주화가 확산되면서 대중에 의한, 대중을 향한 개방형 외교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공공외교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촉매제의 역할로 변화한 것이다(Potter, 2002).

해당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오늘날의 공공외교는 문화, 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 상대국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파워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외교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해당국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관찰’, 해당국 국민에게 국가의 대표자들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 예술 작품이나 지적 표현물로 구성된 문화외교를 통해 해당국 국민들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외국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미디어’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Huyghe, 2011). 이중 미디어는 공공외교에서 가장 광범위한 성장을 보여주는 분야다. 특히 전 세계 국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로벌 뉴스 채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뉴스 채널이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은 한 시기는 크게 두 기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시기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이 끝나갈 무렵까지다. 당시 국제라디오방송들은 자국의 가치와 입장을 외국의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기구로서 역할을 했다(Rawnsley, 1996).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초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명과 더불어 테드 터너가 창립한 세계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CNN으로부터 시작해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위성방송(e.g., CNN, SkyNews, MSNBC)의 급부상과 함께 시작한다. 1990-1991년 걸프전 동안 CNN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자로 부상하였으며 CNN의 성공은 STAR같은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이 채널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라디오방송과는 달리 보다 신뢰할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제적 위기의 상황마다 수용자들의 주된 정보원이 되면서 주요 미디어 외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다(E-Nawawym, 2006; Lynch, 2007).

전쟁, 테러, 인권, 환경파괴 방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 경제, 과학, 문화, 법률, 여론, 정치 그리고 외교 분야까지 CNN이 국제관계커뮤니케이션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CNN 효과’라는 표현까지 탄생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해 전 유엔 사무총장 부투로스 갈리는 CNN을 ‘UN안전보장이사회의 16번째 이사국’이라 칭하기도 했다(Müller, 2003).

이러한 CNN의 위력을 확인한 많은 나라들이 국제뉴스에 대한 자국의 관점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통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많은 글로벌 뉴스 채널이 설립되었다. 국제사회 여론주도층을 겨냥하는 경쟁에 있어 프로파간다나 낡은 홍보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나라들이 고품격 저널리즘을 통한 담론경쟁에 뛰어들었다. 자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어떻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변화를 적절하게 확인하고, 나아가 자국의 관점과 입장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발신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숙제로 부상했다. 미디어외교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김성해 외, 2013).

2. 글로벌 뉴스 채널의 현황

프랑스 언론인 윌리스 고셋(Ulysse Gosset)은 “오늘날 뉴스 채널은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

전의 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는 전통적 외교력 그리고 하드파워라고 일컬어지는 경제력, 군사력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Carvajal, 2006). 이처럼 각국의 미디어를 통한 담론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60개 이상의 글로벌 뉴스 채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글로벌 뉴스 채널의 첫 번째 경향은 영미권의 헤게모니를 전복시키기 위해 다른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글로벌 채널이다. 특히 90년대 들어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글로벌 뉴스 채널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CNN, 즉, 대외정책의 도구이며 영향력과 힘의 상징으로서의 글로벌 채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Fougier, 2010). 스페인의 TVE International, 독일의 도이체벨레, 이탈리아의 RAI Italia, 일본의 NHK World, 중국의 CCTV International, 러시아의 Russia Today, 프랑스의 France 24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두 번째 경향은 북반구 미디어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글로벌 뉴스채널들이다. 대표적으로 중동의 알자지라(Al-Jazeera), 남미의 텔레수르(TeleSur)가 이에 해당한다.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 채널은 단연 ‘아랍의 CNN’ 이라 불리는 알자지라(Al-Jazeera)다.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육성 테이프 최초 공개, 레바논계 무장조직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Hassan Nasrallah) 인터뷰 등 굵직한 특종들을 속속 터트리며 이슬람권 뉴스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방송으로 부상한 알자지라는 서구에 대항하는 이슬람의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뉴스 채널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글로벌 채널이 사우디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아랍 정부들의 국내 뉴스에 대한 통제를 깨부수고자 한 알자지라는 미국 주도의 서구 문명에 대해 ‘이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특정 권역을 대상으로 차별된 시각에서 뉴스를 보도해왔다. 또한 알자지라는 미디어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반발로 같은 아랍권(local) 이념과 이슬람 가치관을 대변하고 종속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탈식민주의와 지역 공동체 연대의식(민족주의, 경제협력체)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알자지라는 거침없는 보도로 뚜렷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국내외에 독립성과 저항성을 갖춘 ‘아랍세계의 대변자’ 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며 서구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아랍저널리즘을 만들어 냈다(Talon, 2011b). 또한 아랍 정치와 문화를 변화시켰고 중동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중동의 민주적인 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Powers & Gilboa, 2007).

남미에서는 ‘거대한 국제뉴스네트워크의 미디어 독재에 맞서겠다는 야망으로 차베스(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주도한 텔레수르(TeleSur)가 출범했다. 알자지라에 비해 텔레수르는 아직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공공외교 전문가인 필립 세이브는 라틴 아메리카가 국제정세 안정에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면 텔레수르는 보다 정치적 영향력을 갖거나 혹은 정치적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Seib, 2011). 이외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공격적인 글로벌 뉴스 채널들의 진입에 맞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베냉, 가봉, 콩고 등을 비롯 프랑스어권 국가를 아우르는 ‘Afrique Media TV’ 를 런칭했으며, 또 다른 방송 채널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계획되고 있다.

기존의 글로벌 뉴스 채널들의 역량 강화도 눈에 띈다. 티베트 유혈시위 사태와 올림픽 성화 봉송 당시 서방매체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경험한 뒤 국제 미디어 시장에서 중국매체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실감한 중국 역시 국가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

을 단행했다¹. 이처럼 중국 언론이 해외 네트워크 확충에 나서면서 국제 여론 형성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영어TV 뉴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TV속에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NHK 역시 새로운 글로벌 전략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면서 세계시장에서 CNN, BBC와 경쟁하기 위해 ‘아시아의 시각’을 내세우고 있다. 2012-2014년 경영계획 발표내용을 보면 NHK는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국제적인 정보 제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여론 시장에서 이미 자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유럽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연합의 등장으로 인해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이익은 미국과 충돌하는 상황이 전개됐고, 특히 유로화 등장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독일과 프랑스도 국제뉴스 채널을 강화했다. 1997년 DW(Deutsche Welle)법을 제정한 독일은 ‘독일의 시각’을 전파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이체벨레를 24시간 국제뉴스채널로 탈바꿈했고, 이미 TV5 Monde, RF 등 몇 개의 국제뉴스채널을 갖고 있던 프랑스는 2005년, ‘국제 여론 시장의 다원주의’를 구현하고 ‘프랑스만의 시각’을 지닌 뉴스를 전달하고자 France 24를 출범했다. 도이체벨레가 발간반도 분쟁 등 국제분쟁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방송으로 성장했다면, 비교적 최근에 출범한 프랑스 24의 영향력은 근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 유럽과 북미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1. 국가가 지원하는 주요 글로벌 뉴스 채널²

TV채널	NHK World TV	BBC World News	DEUTSCH WELLE TV	AL JAZEER ENGLISH	FRANCE24	CCTV NEWS
설립년도	2009	1991	1992	2006	2006	2000
배급규모	2억8천만 가구/ 150개국	3억6천만 가구/ 200개국	2억만 가구	2억7천만 가구/ 130개국	2억8천만 가구/ 177개국	8천5백만 가구/ 100개국
언어	영어	영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러나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약진을 보이는 곳은 RT, 즉 러시아투데이다. 2005년 개국한 러시아투데이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에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러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뉴스 채널이다. 당시 푸틴 정부는 오렌지혁명을 NGO를 내세운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내정 간섭으로 간주했다. 국제 영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느낀 러시아는 바로 다음 해에 러시아투데이를 개국했다. RT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서방 미디어의 맹신에 반대하면서, 주류 언론이 외면하는 음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RT는 BBC나 CNN 혹은 여타의 글로벌 뉴스채널과는 다른 관점의

1 3대 메이저 언론을 글로벌 미디어로 육성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는 450억 위안(한화 약 8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3개사에 각각 150억 위안씩 배정했다. (박홍환, CNN 넘보는 中 신화통신 위성채널 새달 7일 첫 방송, 서울신문, 2009/10/30)

2 2014년, 일본 총무성 연구회 연구논문 「NHK 해외 정보 발신 강화에 관한 검토회」에 나온 자료를 재구성함.

보도물을 쏟아내고 있다. 일례로 2008년 러시아-그루지아 전쟁의 경우, 서구 주류 매체의 보도가 편파적이라 비난하고 정반대의 시각에서 보다 공격적인 논조로 대응했다(Audinet, 2017).

이처럼 RT는 주류 글로벌 뉴스채널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글로벌’ 미디어가 되는 것이 그 임무가 되었고, 점점 방송권역을 확장시켜가는 중이다. 2007년에는 RT의 아랍어 방송을 개국했고 2009년에는 스페인어 방송 서비스를, 2010년에는 미국, 2014년에는 영국에 채널을 신설했다. 그리고 2014년 독일어권과 프랑스어권 시청자를 위한 온라인 매체를 신설했다. RT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Ipsos 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타겟층인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8백만, 3천 6백만 명의 주당 시청자수를 기록한 RT는 국제 방송 채널 중 5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글로벌 뉴스 채널의 출연과 강화는 세계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CNN, BBC, 그리고 다른 서방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고, 이들이 오랫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도 위협받고 있다.

III. 글로벌 뉴스 채널의 딜레마

1. 정권 홍보기관인가, 저널리즘 기관인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지 못한 글로벌 미디어는 국가이익이 아닌 정권홍보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진영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24시간 영어매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낮고 또 이들 언론을 신뢰할 수도 없는 이유이다.

2005년 설립된 RT는 “러시아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러시아의 삶에 대해 보다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서방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정치 평론가 보리스 카가리리츠키(Boris Kagarlitsky)를 비롯한 비평가들은 이 채널이 정부의 홍보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Kagarlitsky, 2006). 다만 구소련 시절의 일방적인 프로파간다와 다른 점은 푸틴의 시각이 담긴 세계관을 ‘교묘하고 정교하게 반영한 뉴스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RT는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대변하는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전쟁의 통신수단이 된다. 특히 알레포 전투 결과는 러시아와 서구 사이의 정보 전쟁의 깊은 대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마을을 탈환한 후 RT는 서부 알레포 주민들의 환희에 찬 모습을 방송한 반면, 대다수의 서구 언론들은 동부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Audinet, 2017). 2016년 핀란드 국제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RT는 서구의 주류 미디어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그 어떤 정책의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러시아는 ‘RT’나 ‘스푸트니크’ 같은 대외용 매체를 통해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프랑스 대선기간 동안 수많은 가짜 정보를 생산했다. 러시아의 정보전에 이용된 것이다³. 사이버 기술

3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러시아 국영매체들은 마린 르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사를, 반면 엠마누엘 마크롱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SNS를 통해 유포하면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RT와 스푸트니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크롱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 ‘마크롱은 싸이코다’, 혹은 ‘마크롱은 숨겨둔 남자가 있다’면서 마크롱 게이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마크롱은 이 두 매체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Gramaglia, 2017: Delcambre & Piquard, 2017)

진보는 러시아의 정보전을 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며,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적발해 내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조지프 나이는 러시아의 정보전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어느 정도 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꽤 성공적이었지만, 긍정적 매력을 창출하는 소프트파워 본래의 관점에서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Nye, 2017). 일례로 런던에서 발행되는 포틀랜드 컨설턴시의 ‘소프트파워30’에 따르면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순위는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신문판공관실, 신화 뉴스 통신, 중국국제라디오, 중국중앙방송의 영어국제방송 채널과 차이나 데일리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이 중국의 발전상과 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 시청자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효과적인 미디어 외교 전략을 세운다고 해도 중국이 인권침해 국가라는 인식을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며, 중국 정부의 엄격한 미디어 규제로 인해 그 경쟁력을 잃은 중국 미디어가 광범위한 해외 시청자층을 사로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Wang, 2013).

정부로부터의 제재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글로벌 미디어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NHK월드 역시 서구의 글로벌 뉴스 채널과 비교했을 때 국제방송에 대한 내용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총무성이 2007년, ‘명령방송’을, 방송내용 등에 대해 ‘명령’ 규정을 ‘요청’으로 완화할 것을 승인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국제방송에 대해 해외 일본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정부 정책, 문화, 전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그리고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을 지정하여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요청방송’ 조항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방송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슬람국가들의 경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보도기관들이 대부분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자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반면 거침없는 보도로 뚜렷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국내외에 독립성과 저항성을 갖춘 ‘아랍세계의 대변자’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알자지라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구현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예를 들어, 알후라라, 알아라비아, 알자지라의 이스라엘-리비아 전쟁을 보도하는 방식을 비교한 한 연구에 의하면 알자지라가 알후라라나 알아라비아에 비해 리비아 정보원과 이스라엘 정보원 이용에 있어 훨씬 균형적인 비율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cf, Talon, 2011b). 아울러 중동 지역 매체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에 따르면 아랍 수용자들은 알아라비아, 알후라라 및 아랍의 지역 방송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다른 아랍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알자지라는 중동에서 가장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ahmy et Johnson, 2010; Rugh, 2004). 필립 세이브에 따르면 이는 아랍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신뢰도 기준을 알자지라가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아랍 수용자들은 정보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집되고, 아랍의 관점에서 정보를 제시하면 믿음만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Seib, 2010).

그러나 알자지라 역시 독립적인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의혹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설립자인 카타르 왕가체제의 이익을 중동 5000만 시청자들에게 대변하는 선전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 민주화 바람이 카타르 왕정체제까지 흔들 기미를 보이자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하마드 빈 칼리파 카타르 국왕은 친척들을 알자지라 제작총국장과 이사회장에 임명했고, 일선 기자들은 보도지침을 내려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리아 내전 관련 보

도는 카타르 국왕이 자금을 지원 중인 반군의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카타르의 우방인 바레인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변질’ 에 반발해 파리, 런던, 모스크바, 카이로 지부에서 기자와 앵커들의 사직이 잇따랐다(최민영, 2013). 이러한 경우 외에도 알자지라는 2011년, 미국 정부와 알자지라의 보도 수위에 대한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는 위키리크스의 공개로 인해 알자지라의 보도 총책임자가 사임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보도 책임자의 이탈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글로벌 뉴스채널의 독립성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사는 오히려 자국의 국제적 신뢰를 잃게 해 때로는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동지역 이외에서 송출하는 아랍어 채널인 알후라(al-Hurra)가 바로 이런 경우다. 부시 대통령에 따르면 이 채널은 ‘아랍방송들이 생산하고 있는 증오로 가득 찬 선전을 차단하고 아랍권에 신뢰할만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비판세력들은 이 채널을 ‘아랍어 버전 폭스 뉴스’ 에 비유했고, 아랍인들은 ‘미국의 패권을 전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채널’ 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한다. ‘자유로운 목소리’ 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꼭두각시’ 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Al-Nawawy, 2007; Al-Seggaf, 2004). 필립 세이브에 따르면 알후라는 객관주의를 지향하는 기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채널을 지원하는 곳이 미국이라는 점이 신뢰도를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고 있다(Seib, 2011).

아부 그라이브(Aru Ghraib)와 관타나모 감옥 수감자들의 비인권적인 처우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의 모습을 방송하는 것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위선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사실 미국의 새로운 위성 텔레비전 방송국인 알후라는 능숙한 제작기술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을 미국 정부의 선전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동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결국, 알후라의 선전처럼 보이는 정보는 비웃음을 살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Price et al, 2013)

기본적인 국가 신뢰성 없이는 공공외교 수단이 문화자원을 ‘매력’ 이라는 소프트파워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것처럼 글로벌 뉴스채널의 영향력 또한 자국의 신뢰성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통제 하에서 편집권의 독립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뉴스채널은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난 서구 선진국의 글로벌 뉴스 매체 역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저널리즘 기관’ 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

2. 국익과 저널리즘의 원칙 사이에서

이미 알려진 대로,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CNN의 보도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난에 시달렸고, CNN외에도, FOX,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대표적인 미국 언론사들은 대외정책에 있어 대부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뉴스 채널들은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자국의 관점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영미권 뉴스 채널의 국제여론 독점에 저항하고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설립한 프랑스24는 ‘자국의 관점을 알리고, 프랑스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 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 개발 분과(La direction du développement des médias)에 의하면 이 뉴스 채널의 임무는 CNN이나 알자지라와 같은 주요 글로벌 채널과 경쟁해 프랑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이미지 형성을 통해 << 시사 뉴스에 대한 프랑스의 시각 >>을 개발할 것과 프랑스의 가치를 전달하고 프랑스 문화를 빛내는 것이다. 알랭 드 푸지악, 프랑스24 초대사장은, “객관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정직함과 공정성은 존재한다” 고 강조했다. 세계의 덜 보도된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보내고, 토론을 장려하고, 경제발전보다는 문화를 강조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24 역시 다른 채널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입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공정한 저널리즘의 대명사인 BBC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ITV에서 프랑스 24로 옮긴 뉴스 앵커 마크 오웬에 따르면, 2006년 이스라엘-히즈볼라 전쟁 당시 BBC 방송은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락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내 공격을 중단한 것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스라엘의 진군을 허용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블레어 총리의 발언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nderson, 2006).

프랑스의 미디어 연구자인 시릴 블레(Cyril Blet, 2010)는 진정한 위험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글로벌 뉴스 채널이 갖게 되는 ‘자기 검열의 가능성’이라고 주장한다.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자기 검열은 신뢰를 하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지프 나이는 “때때로 정부는 국내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제시를 지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이 때로는 신뢰성을 확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한다(Nye, 2013). 자국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매체가 신뢰를 얻고 결국 그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알자지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 매체의 편집권의 독립이 그 매체를 지원하는 정부 혹은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언론이 선전기구로 변질될 위험은 늘 존재한다. 뉴스정보에 대한 제재와 편집의 공정성 사이의 경계를 세우는 일은 이처럼 쉽지 않은 도전이다.

프랑스24의 편집국장 장 레지에르는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를 원한다면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가치, 즉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에서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그 국가의 정보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때문이다(김성해 외, 2013). 그러나 2001년 이라크전쟁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와 끝까지 대척점을 이루었던 영국의 BBC를 제외하고, 자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로벌 뉴스 채널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BBC는 이 매체를 장악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수많은 정치적인 음모들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

IV. 글로벌 뉴스 채널, 현실과 이상 사이

1. 여전한 영미권 채널의 위력

“우리는 지금 정보전쟁 중이며 그 전쟁에서 지고 있다.” 2011년 3월 2일,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한 말이다. 중동의 알자지라, 러시아의 러시아투데이, 중국의 신화뉴스 등 타국의 글로벌 뉴스 채널이 미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과, 1990년대 이래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가 누려왔던 독과점 체제가 도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김성해 외, 2013).

이러한 표면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자체 뉴스 생산력의 문제 및 서방 미디어에 의존적인 뉴스 생산 관행으로 국제정보질서에서 영미권이 갖는 영향력은 여전하다. 프랑스24만 하더라도 스스로 '대안적인 서방의 목소리'를 주창하고 나섰지만 해외에 지국을 세우고 특파원을 파견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콘텐츠의 상당부분을 국내 통신사나 주요 방송사외에 APTN이나 로이터 TV와 같은 세계적인 통신사에도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뉴스 채널이 거대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제는 거대 글로벌 뉴스 채널 역시 콘텐츠 제공자로 나섰다. 2007년 CNN인터내셔널은 뉴스의 자체 생산력을 키우겠다며 로이터와의 계약을 종료했고, 두 달 후 통신원 강화를 위해 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영상 콘텐츠의 자체 생산력에 힘입어 CNN 인터내셔널은 국제 뉴스의 주된 정보원이 되었다. 탄탄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CNN 인터내셔널은 이처럼 글로벌 뉴스 채널의 선구자로서 끊임없는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Blet, 2008).

모든 지역에 특파원을 파견할 수 없는 많은 글로벌 채널들이 해당 지역의 콘텐츠를 공급받기 위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교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텔레수르, 중국CCTV와 제휴를 맺었고 NHK 역시 미국의 몇몇 채널들과 제휴했다. 각각의 채널들은 몇몇 취재 가능한 지역을 제외하면, 그 이외 지역의 뉴스를 방송하기 위해 서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콘텐츠 교환으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뉴스 전달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알자지라는 혁신적 프로그램 편성, 신뢰할 만한 보도 자세, 지속적인 마케팅을 혼합해 중동에서 필수적인 정보 공급원으로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eib, 2011).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글로벌 뉴스 채널들은 영미권의 거대 통신사와 거대 국제방송의 콘텐츠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관점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정보의 동질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Fougier, 2010). 국제뉴스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국제정보질서의 불평등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 글로벌 뉴스 채널?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인터넷은 아주 효과적인 뉴스 배급 방식으로 부상했다. 인터넷의 유연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정부가 기존의 미디어를 차단하는 국가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빈곤 지역에서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Mattelart, 2013). 이처럼 디지털 격차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보 유통에 있어서의 비영토화는 긴 기다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복잡하고 경쟁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뉴스와 함께 자국의 문화에 대한 관점, 그리고 자국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보다 많은 청중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인 많은 글로벌 뉴스 채널들은 방송권역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 바와 같이 이미 영어와 아랍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RT는 2017년에는 프랑스어와 독일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프랑스의 해외방송 통합조직인 프랑스 미디어 몽드(France Medias Monde)는 아랍권과 아프리카 지역에 이어 남미와 아시아로 방송권역을 확장시키고 2017년 말에는 스페인어 방송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뉴스 채널들은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송출 지역이 제한되거나 혹은 송출이 되었

다가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4년 4월 BBC는 중국에서 철수해야만 했다. 중국체제에 비호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송이라는 이유였다. 문제는 이처럼 검열을 통해 방송을 제한하는 국가는 중국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글로벌 라디오 방송국인 RFI(Radio France Internationale,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 역시 제재를 받았다. 2007년 8월, 니제르 정부가 자국 정부에 부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RFI의 방송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한 코트 디부아르는 2010년 12월 2일, 자국 내에 송출되는 모든 국제뉴스 채널의 방송을 중지시켰는데 이는 특별히 프랑스24를 겨냥한 조치였다.⁴

2013년, 개국 초부터 전 세계 8천만 가정에서 시청을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알자지라 잉글리쉬에 대해 미국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 채널이라는 비난과 함께 불온방송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주요 케이블 및 위성 공급업자들이 알자지라 채널을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지며 일부 소수의 시청자들에게도 시청이 제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이 알자지라를 소유한 카타르 정부에 방송국 폐쇄를 촉구했고, 이스라엘 또한 알자지라 예루살렘 지국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알자지라가 ‘무슬림형제단’ 등 테러조직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팔레스타인의 호전적 행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서구 언론들은 중동 왕정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탄압에 비판적인 알자지라를 길들이려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CNN은 ‘미국의 언론’이라는 시각이 강하며, 이런 이유로 일부 지역에 진출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글로벌 뉴스 채널은 상대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송출이 제한되기도 하고, 때로는 뉴스 채널 자체가 스스로 방송해왔던 특정 언어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새롭게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각 언어별 방송서비스의 중단과 시작은 국가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아랍 지역과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해 짐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아랍어 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국의 월드 서비스는 2008년 아랍어 TV방송을 개국했고 2009년에는 페르시아어 방송을 시작했다. BBC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어로 된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방송권역을 확장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글로벌 미디어들에게 있어서도 아프리카 대륙과 아랍권은 그 어떤 지역보다 중요한 타깃 지역이다.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뿐만 아니라 영어권 나라들에도 송출이 되는 RFI, 중동과 근중동 지역에 송출되는 아랍어 라디오 방송인 몽테 까를로 두알리아(Monte Carlo Doualiya)와 프랑스24의 아랍어 방송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두 지역 외에도 프랑스어 이용자가 많은 프랑스의 구 식민지 국가들은 프랑스 글로벌 미디어 전략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종식이나 지역 이해관계가 변화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한 글로벌 뉴스채널의 외교적 가치 역시 사라지게 되고, 국가는 글로벌 뉴스채널의 방영지역을 다시 조절하기도 한다. 물론 지난 몇 십 년 동안 프랑스의 옛 식민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RFI가 이들 언어로 된 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맥락이 현실적인 이해관계만큼 중요시 되는 경우도 있

4 당시 코트 디부아르는 알라산 와타라 전 총리가 로랑 갑보 당시 대통령에 승리했지만 갑보 쪽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대선 갈등을 낳았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와타라 후보의 대선 승리를 공표한 지 하루만인 지난 3일 헌법위원회가 선관위 발표를 뒤집고 갑보의 당선을 선포해 유혈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프랑스24는 대선 투표 후 코트 디부아르의 선관위(la Commission électorale indépendante) 위원장인 Yousouf Bakayoko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라산 와타라의 승리를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이후 코트 디부아르 정부는 자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국제뉴스 채널의 방송을 금지했다.

다. 그러나 최근 RF는 라오스어를 포함한 6개 언어의 방송 중단했고, 이는 글로벌 미디어에 있어서도 국가적 전략이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Fougier, 2010). 청취를 저하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미디어가 국가의 대외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수익창출의 어려움

글로벌 뉴스채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채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등장한 주요 글로벌 뉴스 채널들은 민영 방송인 CNN모델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경우, 정부의 보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때로는 정부가 채널의 운영에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채널들 모두 시청률을 증가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지만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수익을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방대한 규모의 해외 특파원 유지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국제방송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돈보다는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글로벌 뉴스채널을 설립한 러시아나 중국은 이러한 뉴스채널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일례로 RT가 러시아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매년 4120억원(250억달러)에 이르는데 2015년에는 추가로 3000억원(183억달러)을 더 받았다.

이들과 달리 대부분의 글로벌 채널들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글로벌 뉴스채널로 인정받고 있는 BBC월드는 주간 시청자수가 6500만 명에 달한다. 2005년 BBC는 2001년 이후 광고수익이 매년 20%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의 최고 경영자들조차 2010년에 가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BBC 월드 서비스는 2014년 4월부터 영국 외무부(Foreign Office)로부터 받던 운영자금이 전액 끊긴 상태다. 그래서 BBC 본부로부터 수신료를 쪼개 받아서 연명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고, 프랑스 미디어 몽드는 연 244백만 유로로 세 개의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CNN 등 다른 글로벌 채널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상업채널이다 보니 RT만큼 과감한 투자와 방송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CNN을 누른 아랍 채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 자지라 역시 대부분의 자금을 카타르 왕족으로부터 수혈 받고 있지만 이러한 자금만으로는 운영이 힘들다. 알자지라 잉글리쉬는 미국에서 고정 시청자를 확보했고 보도에 있어서 새로운 목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2016년, 미디어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런칭한지 3년만에 문을 닫아야만 했다. 성차별적이다, 반유대주의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알자지라가 너무 ‘영국’ 스타일의 방송이라는 것이었다(Bussard, 2016).

이러한 수익창출의 어려움은 글로벌 뉴스 채널의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적 자금을 의해 운영되는 대다수의 글로벌 뉴스 채널은 전 세계적인 뉴스 연성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현상은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닐 데이 키산 추수(Daya Kishan Thussu)는 “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통제되고 있는 뉴스채널들 역시 시청자, 특히 젊은 시청자들 사로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들은 뉴스를 재미있고 오락성 짙은 정보로 가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한다(Thussu, 2009).

V. 나가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글로벌 뉴스 채널은 정보주권의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평화협상을 위해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나 혹은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이나 국제사회의 동참을 얻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미디어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1991년 걸프전을 통해 CNN의 위력을 확인한 많은 나라들이 국제뉴스에 대한 자국의 관점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통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많은 글로벌 뉴스 채널이 설립되었다. 오늘날에는 미디어 전쟁이라고 칭할 만큼 이러한 글로벌 뉴스채널을 통한 각국의 담론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 채널들이 모두 효과적인 미디어 외교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채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RT의 경우나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알후라의 사례는 글로벌 뉴스 채널을 통해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과 미국에서 영향력을 키워보고자 했던 RT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파워의 측면에서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RT나 스푸트니크 같은 러시아의 글로벌 뉴스채널들은 러시아의 정보전에 합류해 러시아에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했지만 미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파워는 크게 훼손되었다. 이후 2017년 프랑스 대선을 거치면서 이러한 채널들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말았다. 결국 글로벌 뉴스 채널이 미디어 외교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선전도구가 아닌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는 저널리즘 기관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아랍에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설립된 알후라의 경우처럼 객관적인 저널리스트로 무장되어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신뢰도가 낮을 때는 글로벌 뉴스 채널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기본적인 국가 신뢰성 없는 공공외교 수단이 문화자원을 ‘매력’이라는 소프트파워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것처럼 글로벌 뉴스채널의 영향력 또한 자국의 신뢰성과 연관을 맺고 있다. 결국,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통제 하에서 편집권의 독립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뉴스채널은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난 서구 선진국의 글로벌 뉴스 매체 역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저널리즘 기관’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다. BBC의 사례는 글로벌 뉴스 채널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역할, 즉 자국의 정책도 비판하는 권력의 감시견 역할에 충실해야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글로벌 뉴스 채널들은 대부분 자국의 대외정책은 물론, 타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국의 BBC나 프랑스24의 경우처럼 글로벌 뉴스 채널은 상대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승출이 제한되기도 하고, 알자지라가 최근 겪고 있는 폐쇄조치 압력의 사례처럼 보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울러 글로벌 뉴스 채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최근 등장한 글로벌 채널이 영향력을 확대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더구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수익을 창

출하기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글로벌 뉴스 채널들이 고품질 보도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결국 오락성 짙은 혹은 가십성 콘텐츠를 통해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려 애쓰는 형국에 놓일 수밖에 없다. 수익성은 없고 비용부담은 크다 보니 많은 글로벌 뉴스 채널들이 콘텐츠의 상당부분을 APTN이나 로이터TV와 같은 세계적인 통신사에도 의존하고 있다. 국제뉴스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국제정보질서의 불평등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직 한국은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글로벌 뉴스 채널의 딜레마는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글로벌 미디어가 통합되어 자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미디어외교의 주체로 기능하고자 할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글로벌 뉴스 채널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절한 규모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권 홍보나 선전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지위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이익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과 더불어 ‘독립적인 저널리즘’이라는 분명한 목표로부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에 한국적 대안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 여론주도층으로 하여금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뉴스 채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anuscript received: Sep. 04, 2017; Review completed: Sep. 14, 2017; Accepted: Sep. 23, 2017

References

- 김동률 외. (2013).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외교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 김성해 외. (2013). 뉴스통신사의 영문뉴스서비스 발전방안: 국가기간 뉴스 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언론외교 전략, 뉴스통신진흥회 보고서.
- 김성해 외. (2011). 리비아 사태와 글로벌 정보전쟁- 24시간 영어뉴스 채널을 통해서 본 미디어 외교의 현장. 한국언론정보학보, 56호, pp. 86-116.
- 최민영. (2013/02/08). '알자지라 방송, 편파보도에 명성 퇴색... 기자·앵커 줄줄이 사표' , 경향신문.
- 최영재. (2008).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뉴스전문 채널의 위상 변화.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8.5, pp. 25-41.
- Al-Saggaf., Y. (2006). The online public sphere in the Arab world: The war in Iraq on the Al-Arabiya websit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1), <http://jcmc.indiana.edu/vol12/issue1/al-saggaf.html>
- Anderson, J.W.(2006, December 6). All News All the Time, and Now in French, *Washington Post*
- Audinet, M.(2017, April). La voix de Moscou trouble le concert de l'information internationale, *Le Monde Diplomatique*, <http://www.monde-diplomatique.fr/2017/04/AUDINET/57379>
- Baylouny, A.M.(2005). Alhurra, the Free One: Assessing U.S. Satellite Television in the Middle East, *Strategic Insights* 4, N°11
- Blet, C.(2008). *Une voix mondiale pour un État. France 24*. L'Harmattan, Paris
- Blet, C.(2010). Les médias, un instrument de diplomatie publique?. *La Revue internationale et stratégique*. N°78, 119-126
- Bussard, S.(2016, January 14). La voix originale d'Al Jazeera America va se taire, *Le Temps*, <https://www.letemps.ch/monde/2016/01/14/voix-originale-al-jazeera-america-va-se-taire>
- Carvajal, D.(2006, January 8). All-News Television Spreading Its Wing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Delcambre, A & Piquard, A.(2017, March 16). SputnikNews et RT, instruments d'influence de la Russie en France. *Le Monde*. http://www.lemonde.fr/international/article/2017/03/16/sputniknews-et-rt-instruments-d-influence-de-la-russie-en-france_5095246_3210.html
- Ei-Nawawy, M.(2006). US public diplomacy in the Arab world: The news credibility of RadioSawa and Television Alhurra in five countries. *Global Media and Communication*, 2(2), 183-203.
- Ei-Nawawy, M. (2007). U.S. public diplomacy and the news credibility of Radio Sawa and television Al-Hurra in the Arab world. In P. Seib (Ed.), *New media and the new Middle East*. Palgrave Macmillan, New York, pp 119-137.
- Fougier, E.(2010). La Bataille de l'information internationale, *La Revue internationale et stratégique*. N°78, 67-74
- Gramaglia, J. (2017, April 27). Présidentielle RT et Sputnik non accrédités au QG de Macron , *Arrêt Sur Image*, <https://www.arretsurimages.net/breves/2017-04-27/Presidentielle-RT-et-Sputnik-non-accredites-au-QG-de-Macron-id20590>
- Huyghe, F-B.(2011, July 5). Diplomatie Publique, Softpower...Influence d'Etat. *Observatoire Geostratégique de l'Information, IRIS*. http://www.iris-france.org/docs/kfm_docs/docs/2011-07-12-diplomatie-publique-soft-power.pdf. Accessed 20 July 2017
- Johnson, T. J., & Fahmy, S.(2010). Who is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the Arab Public?. *International Communication Research Journal*, 45(1-2), 24-48
- Kagarlitsky, B.(2006). Russia Today will not become Russian Al-Jazeera. <https://www.tni.org/es/node/7624>.

Accessed 23 August 2017

- Küng, L. (2015). *Innovators in digital news*. 한운희 · 나윤희(역)(2015). <디지털 뉴스의 혁신>. 한국언론진흥재단
- Lynch, M. (2006). *Voices of the new Arab public: Iraq, Al-Jazeera, and Middle East politics toda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Mattelart, T. (2014). Les enjeux de la circulation internationale de l'information. *Revue française des scienc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http://rfsic.revues.org/1145> ; DOI : 10.4000/rfsic.1145
- Müller, K.(2003). L'effet CNN, les médias et la gouvernance globale, Réseau Voltaire. <http://www.voltairenet.org/article10222.html>. Accessed 22 August 2017
- Nattier, C.(2015, May 7). La diplomatie publique et culturelle de demain : nouvelles stratégies pour de nouveaux déf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Diplomacy. AIEQ. Canada.
- Nye, J. S.(2013).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 In: <새 시대의 공공외교>. 인간사랑, 서울, pp 167-193
- Nye, J.S.(2017, May 9) Information Warfare Versus Soft Power. Project Syndica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yber-warfare-weakens-russia-soft-power-by-joseph-s--nye-2017-05>. Accessed 23 August 2017
- Potter, E. H.(2002). *Cyber-Diplomacy: Managing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Montreal
- Price, M., Haas, S., Margolin, D.(2013). 신기술과 국제방송: 적응 및 변화에 대한 고찰. In: <새 시대의 공공외교>, 인간사랑, 서울, pp 265-305
- Powers, S. & Gilboa, E. (2007). The public diplomacy of Al Jazeera. In: Seib,P. (Ed.), *New media and the new Middle East*. Palgrave Macmillan, New York, pp 53-80.
- Quant, T & Singer, J. (2008). Convergence and cross-platform content production. In: Wahl-Jorgensen, K & Hanitzsch, T.(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Routledge, NewYork and London, pp.130-146
- Quessard-Salvaing, M.(2016). Repenser la diplomatie publique américaine après le 11 septembre : acteurs, enjeux et stratégies de diffusion au service du leadership, *Mémoire(s), identité(s), marginalité(s) dans le monde occidental contemporain*. <http://mimmoc.revues.org/2441> ; DOI : 10.4000/mimmoc.2441
- Rawnsley, G. D. (1996). *Radio diplomacy and propaganda: The BBC and VOA in international politics, 1956-64*. St. Martin's, New York
- Rugh, W. A. (2004). *The Arab press: News media and political process in the Arab world*. Praeger Publishers, West Port
- Seib, P. (2007). New media and prospects for democratization. In: Seib,P. (Ed.), *New media and the new Middle East*. Palgrave Macmillan, New York, 1-17
- Seib, P.(2011). <알자지라 효과>. 서정민(역). 명인문화사, 서울.
- Talon, C-G.(2011a). *Al Jazeera. Liberté d'expression et pétromonarc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Talon, C-G.(2011b). Al Jazeera, objet médiatique original. Une critique des normes journalistiques occidentales , *Les Temps Modernes*, 664(3), 55-62
- Thussu, D.K.(2009). *News as Entertainment: The Rise of Global Infotainment*. Sagem, London
- Wang, Y.(2013). 공공외교와 중국 소프트파워의 부상. In: <새 시대의 공공외교>. 인간사랑, 서울, pp 453-483